화학섬유, 당분간 수익기대 어렵다!

대우증권, 원료가격 급등으로 메리트 감소 … 효성·코오롱은 매수유지

최근 화학섬유 원료인 TPA, E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화학섬유 주식시장 경기회복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대우증권에 이수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화학섬유 원료가격 상승은 화학섬유 기업들에게 원가부담이 되고 있어 화학섬유기업의 투자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사업의 비중이 낮고 사업이 다변화되고 있어 원료가격 상승의 영향이 적은 기업 가운데, 2003년에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효성, 코오롱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PTA 가격은 2002년 12월 톤당 520-530달러에서 2003년 1월 560달러까지 올랐고 2월에는 톤당 60-70달러가 더 오를 전망이다.

EG는 2002년 12월 톤당 500달러에서 2003년 2월에는 61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Polyester 제품은 원료가격 인상분을 반영해 톤당 80-90달러 상승시켜야 한다.

원료가격이 인상되는 이유는 공급이 타이트하고 유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중국을 중심으로 Polyester 증설분이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학섬유 기업들은 원료가격 상승을 100% 제품가격에 이전시키기 어렵다. 선진국 시장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수요가 부진하고 국내 화학섬유 수요산업인 직물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료가격 상승은 화학섬유 기업들에게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화학섬유 경기회복은 2003년 2월 초 설연휴를 전후한 중국의 화학섬유 시황 회복이 관건이다. 경기회복 가능성에 따라 화학섬유 수요회복 여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선발 화학섬유 기업들은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적다.

따라서 화학섬유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화학섬유 매출비중이 낮고 섬유부문의 수익성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변화된 사업구조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발 화학섬유 기업들은 대부분 화학섬유 부문에서 벗어나 생명공학, 정밀화학, 화학수지 등 연관산업으로 사업이 다변화돼 있다.

효성, 코오롱, SK케미칼 등은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화학섬유 원료가격이 적정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2003년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의 환율하락과 수요부진 등 화학섬유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해 화학섬유 기업에 대한 투자메리트는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2003년 수익개선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섬유 이외 품목으로 다변화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며 적극적인 해외진출, 신규 아이템 개발로 성장이 가능한 효성과 코오롱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23>